

## Ⅱ. 정남정녀제도의 의미와 대책

이 명 회(수위단회사무처 연구원)

1. 들어 가는 말	12
2. 타교단 교역자 등신제 시행의 이념적 배경	12
1) 카톨릭의 경우	13
2) 불교의 경우	16
3. 원불교 정남정녀제도의 이념적 배경	18
1) 전무출신 제도의 기원과 의미	18
2) 정남정녀 제도의 출발과 동기	21
3) 정남정녀 제도의 의미	25
4. 정남정녀제도 운영상의 문제와 대책	28
1) 정남정녀 제도 운영상의 문제	28
2) 정남정녀 제도의 교단적 기여에 대한 교단자원의 보답 내지 보상의 방향	34
2-1) 정남정녀 제도시행에 뒤따르는 과제들	34
2-2) 정남정녀제도 시행에 따른 교단적 과제에 대한 대책들	35
5. 마무리	44
6. 참고 문헌	47

## 1. 들어 가는 말

교단 100년을 눈앞에 두고 교리·제도적 검증이 필연적으로 요청됨은 당연지사이나 그중에도 교역자제도를 면밀히 검토·교정하는 작업은 원불교인상 정립과 교단의 이미지 설정을 새로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단의 교육현안을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불교교역자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원불교 정녀교무제도가 문을 연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정녀제도는 본래 '정남·정녀'제도의 일환으로 출발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하면 정녀교역자를 떠올릴 만큼 원불교 전무출신 - 그 중에서도 독신교역자의 경우,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의 교역활동이 사회적으로 돋보이고 부각되었다. 말하자면 동일한 제도속에 속하면서도 여성(정녀권)측이 괄목할 확장을 거듭한 반면에 남성(정남권)측은 양적성장면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은 원불교의 정남정녀제도가 폐쇄적인 근대 한국 여성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제도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속에 세월을 거듭하면서 원불교의 정남·정녀 제도는 안팎으로 인정받을만한 입지를 확보한 반면 제도의 성격이 평범을 벗어나 있는만큼 교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적지않아졌다. 본 연구는 원불교 교역자제도 중에서도 정남·정녀 제도에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특히 정남정녀 제도의 이념적 근거를 찾고 정남·정녀 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 및 대응안들을 모아 어렵게 정리해 본 것인만큼 교단의 밀린 숙제를 풀고, 보다 발전적인 정남정녀 제도 운행에 일익이 되었으면 한다.

## 2. 타교단 교역자 독신제 시행의 이념적 배경

우리 교단이 정남정녀제를 통해서 독신교역자 제도를 가꾸어 온데 반해서 불교의 비구·비구니제, 천주교의 신부·수녀제 역시 독신종교교역자 양성제도로 2천년 혹은 그 이상의 교단체제를 일구어 왔다. 천주교와 불교 두 경우의 독신교역자 양성과 관련한 사상 및 이념적 배경을 찾아보기로 한다.

1) 카톨릭의 경우 : [한국가톨릭 대사전]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천주교 교역자 독신생활의 의미를 몇가지 요약해 보면.

① 童貞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음: 독신교역자 제도의 전통을 지켜오는 서방 카톨릭에서는 우선 기독신앙의 주체가 되는 예수가 동정이라는 사실이 예수의 경륜을 받드는 천주교 사제가 童貞 내지 독신이어야 하는 원칙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다양한 은혜중에 하느님께로부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기 위하여 불리우고 그 실천을 충실히 서약한 모든 사람은 동정이며 지난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속하시고 성화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하느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② 동정녀 마리아를 본받음 : 기독교 성서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의 모친으로서의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했으되 <수태고지>에 따라 성신을 임태하고 인간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동정녀로 살아간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성모 마리아의 생애 역시 천주교 여성교역자의 독신원칙론과 무관하지 않은 배경을 이루고 있다.

③ 미래에 전개될 성스러운 인간적 삶의 모델이 됨 ----[결혼하지 않고 / 순결한 심신을 바쳐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위해/ 결혼(영적 의미의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표본을 보일 사람들)---이경우는 기독교의 미래관이 반영된 부분이다. 즉, 장차 도래할 <예수의 재림과 함께 하늘의 재판이 실현되면 그동안 죽어 있던 자들과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심판이 행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죽은 자들과 산자중에서 의로운 이들만 살아남아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바로 이때가 되어 - 즉 부활한 하느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세계를 - 이끌어 갈 모델이 필요하므로 - 세속적 삶을 초월한 생활을 하면서-예수와 교회를 남편처럼 섬기면서 미래인들의 삶의 패턴을 앞서 실천할 사람들이 사제라는 것이다 - 한마디로 예수가 그랬듯이 또한 예수의 뒤를 이어 세속적 결혼과 무관하게 동정으로

(혹은 독신으로) 신적가치의 구현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제는 교회와 그 유일한 신랑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혼인을 상기시킨다. 이 혼인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미래에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이로써 사제는 부활한 자녀들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들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신앙과 사랑으로 이미 혼존케하여 미리 생생하게 보여준다}.

#### ④ 보다 쉽게 주님과 일치하고 父性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음:

##### 〈정결과 독신〉

--특히 사제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항상 그것을 크게 존중해야 할 것으로 여겨 왔다: 그것은 목자적 사랑의 표지인 동시에 자극이며, 또한 세상에서의 영적 풍요 함의 특별한 원천이기 때문이다(34) /초대교회의 실천과 동방교회의 전승에서 명백한 것처럼 그것은 사제직의 본질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동방교회에는 모든 주교들뿐 아니라 은총의 선물로 독신 생활을 택하는 사제들도 있지만 그밖에 훌륭한 대처사제들도 있다.-----그러나 . 사실, 사제의 사명은 죽음의 정복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성신으로써 세상에 나게 하신 새로운 인간들. -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인간들 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그것이다./ -----이리하여 사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즉 신자들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자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약 혼시키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려 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 주는 것이다.----}

/ 사제는 새롭고 숭고한 이유로써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갈림없는 마음으로/ 보다 쉽게 주님과 일치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보다 자유스럽게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에 몸을 바치고 주의 나라와 초자연적 간생사업에 쉽게 봉사하며/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父性을 풍부히 받기에 한층 더 적합 해진다). / {독신생활은 교회법의 명령일 뿐 아니라, 겸손덕이 청해야 할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이며, 성신의 은총으로 感導되고 힘을 얻어. 자유롭고 너그럽게 응답하기를 서둘러야 할 선물이기에, 극히 고마운 마음으로 독신 생활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가톨릭대사전/661-성직자:--성직자는 종신토록 정절을 지키고 검소한 생

활을 영위할 의무를 진다

⑤ 독신 생활은 많은 점에서 사제직에 적합함---사제 직무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완전한 사랑을 계속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오직 하느님과 주 예수만을 섬기기에 /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하기에/ 하늘로부터 터의 -성령의 내림을 풍부히 받기에-----

----[가톨릭대사전:\*1023.정결---인간의 성욕을 절제하고 규율하는 윤리덕---그리스도와 사도들은 (1고린 7:33-35\_) 동정과 독신을 귀하게 여겼다 이는 결혼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 나라와 사도직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마태19:12)-----교부들은 성서의 가르침을 발전시켜 정결을 性의 聖化로 보았다 동방교부들은 그 신비적 초월적 성격을, 서방교부들은 실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

⑥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 주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천국을 위하여 지키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금욕이 되므로 : 세속적 즐거움과 안락을 포기하고 조출하고 소박한 독신생활로 <청빈>의 전통을 지켜가기 위하여

★★★기독교중 구교권 {천주교계통}은 교역자의 독신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동방정교>라든가 <구세군>등은 구교로서도 예외적으로 대처사제 제도가 행해지고 있다----

‘초대교회의 실천과 동방교회의 전승에서 명백한 것처럼 그것은 사제직의 본질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동방교회에는 모든 주교들뿐 아니라 은총의 선물로 독신 생활을 택하는 사제들도 있지만 그밖에 훌륭한 대처사제들도 있다’( )---. 한결음 나아가 기독교 혁신교단으로서의 신교권은 전반적인 대처교역자 제도(목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독교단 개혁의 주요 요인---☆교단의 경제적 타락: 면제부 판매등 ☆성직자의 독신반대, ☆수도허원과 미사 성제 등을 문제삼음.

2) 불교의 경우 : 국가·사회적·가정적 구속을 떨쳐버리고 출가를 단행하여 득도한 석존과 그가 초기에 이끈 독신출가 승려들에게 강조한 가치관을 본받아 ---독신출가가 불교적 구도와 교역의 정로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따라서 불교의 전문적 수행인 및 전문교역자는 철저한 금욕 및 독신을 실천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러나 불교 역시 대처승단과 비구승단의 양맥이 병립하고 있게 되었다. \*\*\*일본 불교 : 전 사원의 세습제 (= 전 승려의 대처제), 한국불교 : 일제시대 이후부터 비구, 비구니(조계종단)와 대처승(태고종단)으로 양립\*\*\*

불교에서 승려의 독신을 강조하게되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 『불교성전』, 『숫타니파아타』, 『十萬頌』 등 참조 }

① **인연을 벗어남**---<모든 인연을 멀리하여 은둔수도 함이야 말로 최상의 길이며, 미혹되지 않는 길.>-----불교적 관점에 의하면 모든 현상적인 것은 무상하여 변화하는 것이며 결국 고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중에도 못 인연에 얹혀사는 것은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음의 소치이며 따라서 출가수행자로서 일차적으로 실행해야 할 명제로서 (인연을 벗어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② **세속적 가치에 의한 삶은 비천하고 비진리적인 것으로 간주함**---. 육신을 비롯하여 일체의 물질적인 가치에 의존해서 육신의 안락을 구하는 생활을 기피한다---물질위주로 형성되는 일체의 세속적 가치는 허망할 뿐 아니라 점점더 많은 편안함을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무명업장만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불교 승려로서 <독신>이란 곧 '무소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떨침**---불교의 가치관에 의하면 일체의 현실은 환영에 불과하며 사바세계에 태어난 존재가 추구할만한 지상의 가치는 은둔수도하여 미혹을 벗어나는데 있다고 본다.-현세의 모든 존재란 개인영혼의 상승을 위해 복덕을 쌓는 복전일 뿐이다. 따라서 후손을 낳아 양육하고 가계를 잇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로써 독신생활이 정당성을 얻는다.---석가부터 가 자신의 아들을 '장애물'로 보았음.

④ 불전 최초의 경전으로 알려진 {슈타니파아타}에는 '무소의 뾰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이 나온다. 하나(혼자)야말로 온전한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던가?----일체의 기대와 의존과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번뇌의 불이 꺼지고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겠지만 어찌되었든 불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승려가 독신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념상으로는 혼자가 되어 출가생활을 하는 것은 일종의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요약 }

⑤ 불교나 천주교 어느 쪽도 오리지날 정남정녀(완전한 미혼 남녀만)을 선발하여 교역자로 양성하지 않으며 '정절'을 중시하는 것도 입문 이후의 지조와 헌신에 의미를 부여한다.

⑥ 불교나 천주교의 경우 교역자적 삶의 전형은 두 교단 모두 교조가 살아간 일생패턴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⑦ 두 경우 모두 교역자의 결혼을 일반화하는 종단이 생기거나 새교단을 태동시켰다.

⑧ 만일 누군가 새로운 성자로서 장차 새로운 종교문을 열고 바람직한 교역자 패턴을 정립하려면 적어도 이들 경우보다 성숙시킬지언정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남녀 권리 동일 및 수도인의 결혼자유를 기반으로 한 원불교의 다양한 전무출신 제도는 대종사께서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남녀차별의 문제, 결혼 금지에 따른 종래 종교인의 모순과 교단적 분열의 단서가 될 사항들을 애초에 수렴하여 오직 마음공부 하나로 새 시대 수도인의상을 정립해 주시므로써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종교(종교인상)를 개척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3. 원불교 정남·정녀 제도의 이념적 배경

#### 1) 전무출신 제도의 기원과 의미

원불교 정남·정녀는 원불교 전무출신 유형중 하나이다. 따라서 원불교의 정남·정녀 제도가 태동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불교 성직자를 의미하는 <專務出身>에 관하여 정리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전무출신이란 대종사의 제자 중 특별한 서원을 품고 원불교라는 교단에 투신하여 일생동안 전문적인 원불교 교역자로 봉직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대종사께서는 대각후 대종사 문하에 귀의한 사람들 중에서 믿음과 정성이 남달리 독실한 여덟 사람을 정식 제자로 삼으시고 이에 다시 정산종사를 더하시어 아홉 사람과 더불어 교단의 기초를 세우시었다. 그러나 대종사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방언공사-저축조합-법인기도-봉래 제법기간 등을 거치면서 더욱 확고한 신성을 세우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거룩한 희생의 서원을 다지게 하시며 교법의 강령으로 인격을 다듬어 주신 후에 새롭게 거듭난 인력으로 교단과 세상을 위해 생애를 바치게 하시니 이들 아홉분이 원불교 전무출신一代에 해당된다. 대종사께서 익산에 총부를 건설하시고 전개하신 정식 공동체 생활은 이들 1대 전무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음을 여러 초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 첫 제자들은 모두 남자 제자들이었으며 익산에 총부기지를 정하신 후 초기 여성제자를 키워 남녀 수위단을 조성하셨다.

(註: 원기4-이재철, 이순순, 심기천, 오창건, 박세철, 박동국, 유건, 김광선, 송규---원기 16년 여자 수위단 시보단 ---원기 28. 4-여자 수위단 내정/박사시화, 장적조, 최도화, 이원화, 이청춘, 이동진화, 정세월, 황정신행, 이공주 이상 18인)

이들은 모두 기흔 전무출신이며 아직 정남·정녀로서는 수위단원이 없었다. 이제 이들 초기 제자들을 이끌어간 대종사의 전무출신 정신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대종사께서 생각하신 전무출신이란 한 마디로 {몸과 마음을 이 공부 이 사업에 오로지 바치며/ 성불제중 하겠다고 허공법계와 대중의 앞에 맹세한 사람들(교단 18)}이다. 대종사 당대 자료로서 전무출신 정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찾아보면:

① 防壩役事서약서 …… 우리들은 다행히 大道·大德의 초창시대를 당하야 외람히 단원의 중한 책임을 맡았는바/ 마음은 한 사문에 받치고/ 몸을 공중사에 다하야/ 영원한 일생을 이에 결정하음

고/ 먼저 방언 공사를 착수하오니 오직 여덟몸이 한몸이 되고 여덟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영육고락 간에 진퇴를 같이하며/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퇴진치 아니하고/후회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야 종신토록 그 일심을 변하지 않기로써 혈심서약하오니-----

② 범인기도를 시작하며 ..... 순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써/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욕에 끌리지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여/ 기어히 천의의 감동하심이 있게 할지어다---제군의 마음은 곧 하늘의 성품이라/천지를 감동할만한 요소가 있음을 ---각자의 몸에 중생을 구원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

③ 구인단원 기도문 ..... 대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물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모술수는 그 방편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세계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어늘 ----본 단원동은 위로 대종사의 성의를 받들고/ 아래로 일반동지의 결속을 견고히 하야/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한 후 나날이 쇠퇴해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기로 성심발원이오니---(교고총간제5집,26-31쪽)

이상의 자료중 핵심적인 구절을 모아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대종사의 가르침에 귀의함(마음찾고 사용하는 공부)

★시방세계에 바친 몸(중생제도)

★대종사의 회상에 바친몸

★정신의 힘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도록 함 .

★동지와 일심동체로 화합하기로 함

★개인의 명예와 권리, 이욕을 돌보지 아니함

이제 다시 이들 6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종사께서 생각하시고 지도하신 전무출신의 상이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① **시방세계에 바친 몸**---(교단 7)-전무출신은 원래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중에 바친 터인지라,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불고하고, 오직 공사에만 전력하는 것이 본분----당초서원은 영원한 장래에 무루의 복을 짓자는 것---중생 가운데서 보살의 행을 닦자는 것

② **大功德主가 되는 길**---(교단34)-회상을 창립하는 첫째공덕은 정신과 육신을 전무출신 하는 공덕--- (공도70-喬木世臣---이 회상과 생사 고락을 같이할 만한 동지가 이 회상의 세신이니라--백제의 十濟-百濟----참다운 전무출신이 많

이 나면 날수록 우리 회상은 영원히 흥왕하고 시방에 빛나리라

③ 세상의 마음난리를 평정하는 거룩한 사도(영원한 공부인)가 되는 길---(수행58-마음난리에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都元帥가 되는 길. (수행63)-수양.연구.취사의 삼학을 공 부하여, 위로 佛智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자는 길/법강항마위 계문에 대한 말씀---(수행55)-길잘든 마음소로 너른 세상에 봉사하여 제생의세의 거룩한 사도가 되는 길

④ 개인의 명예와 권리, 이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는 길---(수행35)-사심을 거두어 한량없는 천록으로 사는 길/세상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수행7)-마음 가운데 일호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나니---(수행 6)-큰 공부에 발심한 길/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하여 그 목적을 이룰 것.

⑤ 교법과 교단에 대한 지조를 빼치 아니할 것을 서원한 길

〈註 기타 ①법어 공도편 1장-64장----전무출신의 자세

②전무출신의 道 12항---정전대의 p153

③창립정신----사무여한/이소성대/근김저축/일심합력

④전무출신 서원서 :

☆마음은 사문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생생 이 법륜을 떠나지 않기로 한다.

☆본교의 명령에는 수화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기로 한다.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원을 위하여 정진하기로 한다.

☆전무출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 준수하기로 함〉

-대종사께서는 전무출신으로서 이상의 5가지를 충족함과 동시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조항을 밝혀 주셨기에 이에 옮겨 보기로 한다.

〈전무출신으로서 주의할 점〉

① 개인의 사업이나 향락에 떨어지지 말 것./교단18

- ② 재와색의 그물을 조심할 것/교단19.
- ③ 대각을 하지 못하고 대각을 하였다 하여 대중의 전도를 그릇 인도하지 말 것/교단18

-지금까지 정리해 본 전무출신의 이념에 비추어 교단 전무출신의 삶이 갖는 의미를 짚약해 보면 :

- ① 복혜증진(성불·제중)의 기회--인격완성을 위한 연마
- ② 세상에 유익을 미칠 기회-세상을 밝혀가는 기쁨
- ③ 安分知足의 삶 ---큰 살림---물욕초월의 심법, 정신적 열락에 기초하여 삶의 조화를 꾀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누리는 안정된 삶.
- ④ 도반과 함께 하는 기쁨
- ⑤ 천록으로 사는 기쁨---나눔의 기쁨/ 바람 없는 마음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등으로 의미지워 볼 수 있다.

## 2) 정남정녀 제도의 출발

이상의 내용들은 새 시대를 이끌어갈 종교의 전문 교역자로서 원불교 전무출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의미인 동시에 교단 창교이래 배출된 일천 오백 여 교역자들이 기꺼이 몸과 마음을 바쳐 구하고자 노력하고 개척해온 삶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본 교단에서 정남정녀제를 첨가하게 된 진정한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기독교나 불교처럼 일상을 벗어난 독특한 모습을 따로 취한 일이 없으셨다. 이와같은 교조적 삶의 차이 때문인지 원불교 교역자의 등단은 정남정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또한 앞에서 보다시피 본교 전무출신의 필요조항으로서도 정남정녀제는 전혀 무관하였으며 나아가서 대종사 재세시의 남녀 수위단 구성원은 전원이 기혼 전무출신이었음도 그러하다. 따라서 교조를 따라 동정을 지키거나 독신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일체 인연을 불고하고 출가승단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원칙 등은 원칙적으로 성립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초기역사를 지닌 원불교 교단내에서 세속의 모든 욕락을 여의고 일생 토록 정결한 심신을 바쳐 성불·제중에 임할 것을 서원한 사람들을 수용하여 관

리하는 원불교 교단의 정남정녀 제도는 원기 12년 공타원 조전권 종사의 발원이 그 효시가 된다. 본 교단에서 처음 정녀교역자를 소망한 바 있는 조 전권 종사의 발원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 ‘한 가정을 위해 희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은 것’이었다. 대종사께서는 ‘시집을 가서 한 가정을 위해 희생하기 보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하고자 한다는 조전권의 뜻을 읽어주시며 그러한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내가(대종사께서) 지도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성취가 가능하리라는 답변으로 정녀출가를 허락하셨다. <註 : 이때의 ‘내가 지도하는 방법’이란 대종사께서 마련하신 - 11과목 훈련과 전무출신 정신으로 전적으로 무장한다면 - 의 의미이지 ‘정남정녀로 산다면’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이와같은 초기교단의 흐름을 살펴 보건대 공타원 조전권 종사 이후 출을 이은 정남정녀 서원자들은 교단 인재 중에서 특별한 서원을 가진 경우를 중심으로 한 소중한 인재群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결코 교역자를 지원하는 지망자 전원에 대한 조건부 규정이 아니었다.

<註 : ① 교단품 17 : {대종사 정남 정녀들을 자주 알뜰히 살펴 주시며--}라는 대목의 ‘정남정녀’란 {여러 형태의 전무출신중에서도 특히 정남 정녀들을 ~ }의 의미일 것이므로.

② {원불교 용어사전} : <전무출신> 및 <전무출신의 도>--이들 중 어느 항목도 원불교 교무는 독신 또는 정남정녀라야 한다는 표현이 없다.

이 제도가 정식법규로 처음 제정 된 것은 원기 18년의 일이었다. (정식시행은 아직 보류된 상태였다.) 이 법규의 발원은 원기 12년 2월경에 발표된 “본회유공인 대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원기 18년 3월경 “예비 정남정녀부와 정식 정남정녀부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발표된 것이다.(註 :이외에 원기 15년 대종사께서 親定하신 新制禮典/{원불교사상 제 5권 부록 참조}의 내용을 통해서도 정남정녀 전무출신자들에 대한 유공인 대우 기준 참고요망)

이러한 교단의 정신적.제도적 격려속에 조전권 종사 이후로 7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800명에 육박하는 정남·정녀 교역자들이 배출되어 교단의 크고 작은 일에 혈심으로 봉사하고 수행하는 기풍이 이어져 왔다.

상기한 제반 사항을 바탕으로 하면서 본교에서 정남정녀로 전무출신 하려는 지망자들의 서원 동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진리에 및 구도적 정열… 진리와 교단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현하는 길인 동시에 독신자에게 주어지는 정신적·육신적 자유를 투자하여 공사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참나(眞我)를 찾는데 일생의 모든 것을 건다고 하는 전통적인 출가의지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점이야 말로 원불교 전무출신으로서 정남 정녀를 지망하는 최우선적 항목이 될 것이다. 원불교의 독신 교역자 지망은 천주교나 불교와 같은 신비적 교조관이나 미래관(주:천국에서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모두 독신으로 구세주 예수의 삶의 형태를 따라 살게 된다는 기독교적 미래관을 뜻함), 혹은 출가위주의 修道觀 등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교조의 인격과 그가 천명하신 진리에 대한 절대적 신성에 바탕하여 수도정진상의 효율과 오롯한 헌신을 원하는 사람들(전무출신)을 위해 새롭게 형성된 제도이다. 이것은 서원을 세우는 개개인들이 지닌 인격성취에 대한 투철한 서원이나 진리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극히 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출발동기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어느 경우보다도 진리와 법에 대한 성숙하고 확고한 이해없이는 발심부터가 어려운 길인 것이다. (주:이처럼 대종사께서 열어놓으신 교법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평생을 순결한 심신으로 본 교법을 수호하면서 교조께서 깨달으신 경지를 구축하리라는 발원은 함께하는 동지(전무출신)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대외적으로 교도, 비교도간에 교법의 진리성과 신성함에 대한 크나큰 신뢰를 갖게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일급 유공인으로 대우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

② 공도에 대한 헌신---기왕지사 (전무출신을 서원하여) 공도에 바친 몸이니 아예 100%를 다 바쳐 남음없이 공익을 위해 결림없는 몸과 마음으로 살아 보리라는 것이다. 같은 전무출신이로되 이왕이면 (새시대의 수도인을 위해서) 대종사께서 개척하여 당연하게 허용해주신 결혼의 길조차 마다하고 대종사께서 열으신 회상에서 대종사님의 경륜을 받들어 나가는데에 전일하게 살아보리라는 순수한 뜻을 발함이다. 세간의 영화에 대해 자연스러운 만큼의 미련조차 벗어나 공도(회상과 세상)을 위해 심신을 바쳐보리라는 높고 순수한 서원을 이루는데 매우 적절한 제도라는 판단하에 정남정녀를 택하는 것일터이다.

③ 성불의 지름길---대종사께서는 -그대들이 한 생 동안만 재.색. 명리를 놓고 세상과 교단을 위하여 고결하고 오롯하게 활동하고 가더라도, 저 세속에서 한 가정을 위하여 몇 생을 살고 간 것에 비길 바가 아니니, 한 생의 공덕으로 많은 세상에 무루의 복락과 명예를 얻을 것이요 결국 成佛의 大果를 증득하게 될 것(교단17)이라 하셨다. 같은 전무출신으로서 公家를 위해 헌신하고 求道하더라도 忍苦를 要하기는 하지만 독신으로 일관된 노력을 들이는 정남정녀의 길을 통해 훨씬 빠른 공부와 넉넉한 功德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보장하신 말씀이다. 실제로 많은 정남정녀들은 이 말씀에 깊이 의지하여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경우가 적지않음을 종종 보게 된다. 정남정녀는 가족적 책임이나 집착에 매이지 않으니까 교단일을 하거나 수행도상에서 때로 욕심이 일거나 대외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목숨을 돌보지 않는 과감한 용기를 발하여 경계를 뛰어넘기에 비교적 장애가 없으리라는 것이다.

④ 순결을 유지하며 사는 길---이 경우는 가정을 갖지 않음, 혹은 홀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발상일 것이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일생을 지내고자 하는 발원은 남다르고 특이한 소망이다.(실시27) 한편 이러한 발상은 혼탁한 가치관에 물든 일반세상에서는 발상도 발상이려니와 도저히 지켜질 수 없고 보호되기 어려운 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대종사께서는 공부와 公事의 도량이자 인류의 낙원적 삶의 구현체로서 충부를 비롯한 원불교 공동체를 가꾸어내시면서 이러한 특별하고 조촐한 발원을 허용하시며 자상한 보살핌으로 지켜주신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단순히 일신의 안일을 도모하기 위한 발상이 되지않도록 이기적 발상을 경계하고 보다 큰 성과를 나누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활용되도록 정남정녀들의 정신방향을 이끌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종경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즉, 교단품-16장을 통하여 '---혹 특별한 발원이 없이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거나 혹은 자기 몸 하나 편안하기 위하여 ---독신생활을' 하려하거나, 아니면 교단품 17장에서 설사 처음에는 높은 뜻을 품고 정남정녀를 서원했더라도 실천의 노력이 부족하여 '---형식만 정남정녀요 특별한 보람없이 살고 가게 되면 이는 또한 虛妄한 일이 될것이라' 하신 대목등이 그것이다.

### 3) 정남·정녀 제도의 의미

#### ① 공동체 내의 정남·정녀 제도 / 다양한 형태의 전무출신들

원불교 교단은 초창기부터 전무출신들이 공동생활로 교단의 뿌리를 내렸다. 총부, 영산등지에서 비롯한 원불교 교역자들의 공동생활은 생활공동체와 신앙·수행공동체를 겸한 공동체로서 낮에는 일하고 밤과 새벽에는 수행정진하는 영육쌍전의 산실이었다. 원불교 교단으로 하여금 (한국인들에게서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았던) 일본행 정단체로부터 종종 모범단체로 인정받게 만든 주동력이 바로 총부공동체의 도덕성과 활기 넘치는 분위기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치 한바가지의 바닷물과 같이) 남녀노소, 기·미혼이 어울린 상태, 일반 세상의 가족 구성요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구조 속에서 법도와 사랑이 충만한 삶의 이상境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살아있는 삶의 운영체험을 교화의 현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교화체 였기 때문이다. 대종사와 선진들께서 이처럼 이상적인 삶의 구현장으로서의 공동체를 일구어내셨다는 사실은 원불교 교역자들의 공동생활이 <광대무량한 낙원건설>이라는 개교주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게 한다.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한다”는 말은 대규모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여 고해에서 헤매는 끝 존재들을 옮겨살게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오히려 작은 살림살이일 망정 뜻으로 뭉친 한 단체가 맑고 화락하고 풍요한 기풍을 성공적으로 유지 진작시켜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삶의 모범으로 드러나며 / 동시에 그와같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원리와 방법론을 부지런히 홍보하고 전수시켜 가는 일을 통해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원불교의 정남정녀들은 :

외형적으로는 다같은 독신이라도 내적으로는 교단공동체속에서 기혼그룹과 가족적 동화-친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창출되고 육성된 제도로서 천주교 신부·수녀나 불교 비구·비구니처럼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독신제가 아니다. 교단의 역사를 읽어보자면 초기교단에서 전무출신이 되고싶게 만드는 동기는 첫째가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이요 둘째가 공동체의 삶에 합류하고 싶은 소망이며 그 세째가 冬夏禪참가를 통한 감동이었으리라. 실제로 역대의 많은 선진들이 그러한 경로를 통해 전무출신의 대열에 동참하였음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직 미혼이거나 또는 결혼생활이나 경제적 댓가에 묶임없이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어 이 공부 이 사업에 동참하여 살고싶은 남녀가 함께 모여 희망을 안고 개척한 도량이 충부였으며 그러한 생활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소망의 일단이 바로 정남정녀의 서원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원불교내 정남정녀에게 특별히 허용되어 있는 '자발적 지원'의 의미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무출신을 하되 결혼여부는 순전히 자의에 맡김으로써 결혼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선택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 교역자의 결혼에 대한 대종사님의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남정녀가 결혼함과 동시에 전무출신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현 교단의 상황으로 볼 때 '자발성'이나 '본인의 자유'라는 말은 이론과 사실상 심한 거리감이 있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외'가 허용되고 인정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 자발성을 이루려면 선택의 자발성이 주어지는 훨씬 다수의 기본구성원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일을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되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려는 사람에게 전혀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 보장될 때 명실상부하게 그 단체에서 보장하는 자발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대종사님 당대에 정남정녀서원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전무출신이 공존할 수 있었던 풍토는 초창교단이어서가 아니라 승려의 결혼을 개인적 자유로 혁신하신 대종사님의 뒤시의 산물이었으며 새 시대를 선도할 사명을 타고 난 우리 교단만의 앞선 성숙함 이었다고 하겠다. 바로 이와 같은 풍토 속에서 성장한 정남정녀요 남녀동등한 정신문화를 향유한 여성들이었기에 초기 여성 전무출신들이 비교적 성격적인 원만성과 기질적인 다감성 및 활발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교단의 중심 에너지원으로 자랑스러운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② 용심공부의 실천자 … 인격연마(수행)를 위한 실천적, 전문적 장을 가꾸어 가는 주동력이 됨. 정신적 분위기 (영성적 토양) 생성. 재가교무(기혼교무)들로 하여금 지속적 적극적 수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촉매) 역할.

③ 무소유의 모범 … 세속적 가치추구를 절연하고 일원의 진리 수호와 교단의 발전 그리고 자아성취에 심신을 몰입시키므로써 교단의 성스러운 가치가 지속되게 하며 이를 고조시키는 역할. 타교단의 경우와 달리 기혼과 미혼 교역자가 함

께 어울려 공부하고 일하는 교단으로서 본 교단내의 정남정녀들의 독신생활과 이에 따른 무소유적 삶의 실천은 교단의 정신적, 경제적 풍토에 지속적인 청정효과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있다고 본다. 정남정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러한 풍토는 기혼 교역자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교단제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서원을 반조하고 어려움을 견디어나가는 촉매작용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기능은 만일 본 교단이 단순한 정남정녀로만 조직된 교단이었다면 (다른 현존하는 교단들의 경우를 돌아볼 때) 현재와 같은 정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정남정녀의 무소유도 기혼과 미혼이 어울리는 본 교단과 같은 풍토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④ 교단에 대한 전적인 희생심과 애정 … 교단유지의 구심력을 형성함. 부분적인 예로 현재원불교 여성교역자들의 건축역량(금전관리와 설계 시공능력)은 타 종단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초능력에 가깝게 성장했다고 본다. ---수학기간중 건축상식의 초보조차도 근접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이처럼 180도 이질적인 방면에 그것도 다수가, 전문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만큼 변모하게 만든 것은 교법에 대한 절대적 신심과 교단에 대한 헌신적 애정,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불고하는 독신자의 몫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성취의 한 단면일 것이다.

⑤ 교역자적 지조와 구도흔의 상징 … 대종사님을 친견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든 친수제자들이 생존한 때에는 주로 그분들에 의해 교역자로서의 평생지조와 구도적 혼이 지탱되어 왔다. 그러나 원불교 정녀 교역자들이 교단적 이미지의 주역이 되다시피한지 이미 오랜 지금, 정남·정녀들의 정신차원과 구도적 정열이 원불교 교단의 진리적 수준과 운영의 합리성을 재는 잣대가 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금후 교단의 정남정녀에 대한 교육과 정진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것과 교단의 질적 성장은 결코 조개볼 수 없는 하나의 과제가 되어있는 것이다.

## 4. 원불교 정남 정녀 제도 운영상의 문제와 대책

### 1) 정남정녀 제도 운영상의 문제들

#### ① 공동체 불균형 초래

교단 초기에는 사진으로만 보아도 식별할 수 있듯이 총부 상주인구중 남자 교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는데 현재는 완전히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 총부를 개척할 당시 총부의 가족구성은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초창 제자로서 남자만으로 구성된 전무출신과 그들에 딸린 가족, 가정생활을 청산하고 출가한 기혼 여성 제자가 전부였다. 이로부터 약 3년후(원기 12년 10월 출가) 공타원 조전권 종사를 비롯한 정녀지원자들이 총부생활에 합류하였으며 다시 여기에 젊은 미혼 남자로서 대종사님의 법하에 귀의하여 총부에서 살게된 초기 제자들, 또는 전무출신의 어린 자녀들 등등이 한데 어울려 남녀노소가 고루 조화를 이룬 공동체로서 다양한 구성원 속에서 법도를 갖추고用心하는 힘을 기르는 인생훈련장이었다.

근래들어 총부에는 다수의 정녀교역자와 소수의 정남교역자 및 출가형 가정생활을 하는 남자교역자(공동체내 상주)가 약간명 상주하고 있다. 교단 초기에는 물론 사가생활을 불고한다는 원칙이 기혼 교역자와 독신교역자 모두에게 통용되었다. 이 흐름을 지켜 현재의 총부공동체나 영산공동체에 근무하는 남자 교역자/ 일부는 총부주거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총부의 상주인구는 여성교역자 일변도라고 해도 될만큼 남자 교역자의 거의 전부가 가정생활 관리를 위해 출퇴근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교단의 재정적 자립이 미약한 상태에서 결혼한 남자교역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과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지리적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다수의 남자교역자들이 총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 배치되어 그나마 안정된 근무조건을 배려받는 동안 구조적으로 단출한 독신교역자들-더군다나 상대적으로 훨씬 다수가 된 여자교역자들의 대부분이 일선교당에 투입되어 교화를 일으키고 막막한 교당경제를 개척하여 교당을 신축하는 주역으로 헌신적으로 봉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단과 교단의 여성 교역자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한층 높이게 되었음도 사실이다. 한편 기관(총부)쪽을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기관에 배치된 남자교역자들 대부분이 출퇴근형 근무를 하는 추세가 강해

져서 총부의 휴일이나 야간에 남는 인원은 거의 여자 교역자이며 남자 구성원은 소수의 정남교역자를 포함하여 극히 한정된 인원들이 총부를 지키는 전부가 되었다. 이러한 교단의 추세가 수십년 지속되면서 총부는 물론 교당교화 패턴 및 교당 생활관 설계의 여성화를 초래하는 등 교단 여러 방면의 불균형을 가속시키게 되었다. 이 현상은 정남정녀 제도를 여성위주로 편중시켜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원불교적 삶의 모델 또한 편향적인 인적구성을 초래하고 교단의 교화 스타일이나 교도의 남녀비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② 남녀불평등 초래** ---전무출신(수도인)에 대한 결혼자유화가 남자교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며 결혼하여 전무출신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교역자들에 대해서는 환속의 길을 택하든가 결혼을 포기하는 길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열려있지 않다.

반복되는 말이 되겠으나 교단적 역사를 살펴보건대 원불교 교역자의 등단은 정남정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원기 12년 9월 공타원 조전권 종사의 발원으로 비롯된 원불교 정남정녀 제도는 어디까지나 원불교 전무출신의 한 형태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었지 정남정녀 제도로부터 전무출신 제도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교역자의 전 집단이 독신주의를 표명한다든가 출가자의 가정생활 자체를 비진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기성 노대교단들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입지가 다른 것이다. — 본래 소태산 대종사께서 불법연구회를 개창하여 불교를 혁신하시려 한 주요 항목 중의 하나로 <승려의 결혼자유화>가 거론된 사례를 보더라도 정남정녀라는 독신생활 양식이 원불교 전무출신 참여를 위한 기초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새로운 회상을 펴시면서 기존 교단의 집단적 독신제의 모순을 뚜렷하게 지적하시며 새회상의 포부속에 교역자의 결혼자유를 또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단 개교이래 오늘날까지 애초에 대종사께서 보장하신 결혼제도를 남자 교역자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두가지 길을 함께 닦아나가고 있는 반면 여자교역자들의 경우 결혼이란 감히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남의 일이 되고 말았다. 교단에서는 오랜동안 여성(정녀)교역자들의 교단적 정열과 독신으로서의 단출함이 초기 교단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직한 戰士로서 크게 기여하여 여성교역자의 역량이 내외로 드러나게 되었으나 한편 결혼과 관련된 여성의 권익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치되었으며 오히려 초창기 보다도

철저한 남녀차등의 현상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대종사님 재세시 수위단원이셨던 여성전무출신들은 가정을 떠나 총부에서만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정을 충분히 관리하면서 동시에 총부를 내왕하며 훌륭한 여성교역자로서 큰 업적을 남긴 경우도 있었다. 이런 다양한 길이 더욱 넓혀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전무출신의 길이 단절되어버린 정녀교역자들의 경우는 대종사님의 개혁 의지와는 달리 결혼에 관한 여자교역자들의 자발적 결정권이 심각하게 무시되고 축소되어 온 것임을 사실적으로 입증한다. 대종사께서는 상기한 바 불교나 기독교 교조의 경우와는 달리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의 방식(결혼)을 따르셨으며 결혼한 초기제자들에게 결혼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신 일도 없으셨고 또한 당신의 가족을 총부근교로 이주시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다. 더군다나 승려의 결혼자유를 약속하신 분으로서 정남정녀를 굳이 권장하지 않으심은 너무도 당연한 대목이다. 다만 당신께서 천명하신 진리와 교법만을 위해 혼자몸으로 살고자 하는 제자의 뜻이 대견하고 감사하시어 “같은 전무출신 중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하여 명부를 따로 만들고 ‘유공인’으로 받들게 하며 노후에도 아쉬움이 없도록 “정남정녀 한사람 앞에 시자 한사람씩 딸려 시봉을 받게 해주마.”라고 하신 것으로 짐작된다.

(註로 돌릴 것---〈예〉 [회보] 4호, 45호 내용 참조

~정남·정녀 양부는 ~ 남녀 회원에게 정남정녀 될 것을 장려하여 결혼을 금지하는 본의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

정남정녀는 미혼 남녀로서 오직 본회의 공부사업을 전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독신생활 하겠다는 사람을 취급하는 명부다

〈예1〉 교단품 16: 우리의 전무출신 제도는 가정을 이루고 공부 사업할 수도 있고, 특별한 서원으로 세상욕심을 떠나 정남정녀로 활동할 수도 있으므로-----

〈예2〉 조선불교 혁신론: 과거의 불교는 ~ 결혼생활에 들어가서도 출세간공부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또한 넓지 못하다 할것이며~ (이를 바로잡아) 결혼생활에 들어가서도 自意에 맡길 것이며-----

이러한 교단적 역사를 돌아보기 때 대종사께서 개척해주신 승려의 결혼 자유화 문제의 일환으로 함께 생각할 점은 남녀권리동일의 원칙이 남녀교역자의 결혼에 관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못해 왔다는 사실이다. 교단내에 이어져 온 이러한 역사적 현상은 대종사님이 실현을 보고자 하셨던 {승려의 결혼제도 개혁의지}와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승려의 결혼에 관한 한 대종사님의 원대한 경륜이 여성 전무출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끼침이나 유익이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결혼제도에 관한 한 원불교 여자교역자의 경우는 결혼생활을 금하는 기존 종교의 사례와 비교해서 발전된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교단의 풍토는 여성 교역자 전원이 출가서원 당시부터 선택불가의 외길 서원(정녀서원)을 하도록 되어있어 여성교역에 관한 한 출가=미혼 내지 독신, 중도결혼=교역자 자격 박탈의 등식이 성립되게 되었다. 즉 동일한 정남정녀이면서 남자교역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무출신이면서 정남으로 기여함>으로 풀이되는데, 여자의 경우는 <정녀가 아니면 (또는 정녀에 준하는 독신이 아니면) 전무출신 불가>로 풀이되는 현실이다. 또 예비교역자 입문시 여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지원서] 도 100% 남녀 불평등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남자들의 경우는 수학후 교역자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남교역을 지원하게 되어있어 남자전무출신의 경우 정남지원의 자발성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 반면에 여자는 지원의 시기에서부터 이미 자발성이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교발위] 이후 연령제한을 이유로 기혼여성의 예비교역자 입문이 (은연중) 차단된 사실은 남녀 권리동일 이념을 선구적으로 실현해 왔던 원불교가 여성 교역자의 결혼에 관한 한 오히려 폐쇄적인 형태로 (남녀)차별화되고 시대적으로 퇴조하는 추세에 있음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교단적으로 시급한 손질을 필요로 하고 있다.

### ③ 교역자 정서의 불균형 초래

이와같은 결혼에 관한 교단의 시각은 은연중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성장하고 결혼과는 상관을 갖지 않는 정남정녀 중심의 가치관과 정서가 교단을 끌어가게 되었다. 초기의 공동체 풍토에서는 독신자가 기혼 동지 및 그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벅찰 것도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실로서 결혼이 인간의 당연하고 자연한 제도임을 의식적·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였으며 그 속에서 또한 자유스럽게 자발적으로 독신을 발원하는 분위기였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노대 종단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활력있는 종교 공동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남·정녀(그중에서도) 정녀 중심의 여성 전무출신자들의 활동과 육성이 두드러지면서 결혼한 교역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갖게 되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가정내의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꺼낼 수 없게 되어있는 교단의 분위기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론 원불교 교역자 생활의 중요한 전통의 하나, 그중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전통은 결혼을 금하지는 않았으되 교단생활만큼은 철저하리만큼 독신(혹은 무소유)에 준한 생활을 장려해 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정을 불고하고 공사에 전념 토록하여> 독신 교역자가 사가를 자주 왕래하거나/ 결혼한 교역자가 가정을 자주 오가는 것을 가장 경계해 온 교단적 전통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예로 교역자의 용금제도를 들 수 있다. 교단 초기로부터 현재까지 원불교 교역자의 예우는 최소한의 자기관리비로서 용금의 수준을 책정해 왔다. 즉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경비 수준을 배려하는 용금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대종사께서 교역자들로 하여금 가정보다 교단의 공종사를 우선하는 취사를 강조하고 교단적으로 생활대책에 막막했다고 해서-----결혼을 잠정적으로 불허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도록 하는 기풍을 키워가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예로 비록 간난한 생활이었지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두분께서 부터도 결혼한 가족을 불법연구회 근방(총부구내)에서 돌보셨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초기 교단사를 보건대 결혼한 교역자의 생활이 곤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어려운 교단 살림에 대종사와 선진들의 머리를 뜨겁게 하는 중요 문제이긴 했으나 결혼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동정을 강조하신 등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 날 정남·정녀들의 의식이 협소해지고 교화선상에서 교역자 사이에 대화가 단절 되며 교화패턴이 다양하지 못한 점, 또는 총부를 왕래하는 정토회원이나 원친회원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고 뜸한 현상 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

만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점과 이에 따른 교역자 정서의 불균형이 크게 한 몫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결혼 여부를 떠나서 결혼에 관한 한 한번도 제 소리를 내 보지 못한 여성 교역자들의 억눌린 정서, 거기에 가세하여 숫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높은 여성교역자들의 억눌린 의식은 개인과 교단에 밝은 힘이 될 수가 없으며 언젠가는 교단이 직면해야 할 크나큰 과제를 갈수록 증대시키고 있는 것 같다. 결혼과 독신이 等價值로 인정되고 그러한 인식의 기초하에 결혼에 대한 남녀평등을 시행하며 나아가 전무출신과 정남정녀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공동체적 정서적 편향을 극복하고 구도적 출가의 의미와 濟世사업의 보람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교회를 위한 정서적 기반 약화

교역자의 정서적 편향은 당연한 결과로 교회에 임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을 이룬다고 본다. 많은 여성 교역자들이 어렵고 힘든 건축에 정열을 쏟으며 병이 겹치면서도 차라리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교당교화보다 수월하다는 생각을 갖게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사실 교단에서 정남·정녀를 권장하고 양성하기에 급급한 반면 이들(정남정녀들)이 가정사를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채로 가정사에 깊숙이 간여하게 되는 교회 일선상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개인의 정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결혼한 교역자들의 경우 본인의 공부심 외에도 일반적인 기혼자들이 겪는 가정적 부대낌이나 자녀양육을 통해 폭넓은 자아형성에 도움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남·정녀들은 구도적 정열과 순결한 의식을 바탕으로 발휘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특별한 에너지가 그들의 자아성숙을 이끌어 간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원만하게 개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단적으로 더욱 철저한 연구와 다양한 교육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이 잘 개발될 수 있다면 정남정녀의 삶이 갖는 한계를 여러모로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단적으로도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이 크게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정남정녀 제도의 교단적 기여에 대한 보답 내지 보상의 방향

### 2-1) 정남·정녀 제도 시행에 뒤따르는 과제들:

상기한 문제점들을 통틀어 보건대 정남정녀 제도가 지향할 방향을 잡아보면:

① 결혼생활이 인간의 정상적 삶의 패턴임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비정상 아닌 超정상적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준다는 시각에서 모든 제도가 입안되어야 한다. ② 독신생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지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건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독신생활로 인한 자유와 능률을 구체적으로 발휘하고 교단적으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인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안정된 삶의 기반 제공 - 후생복지 실현과 노후보장 ⑤ 낙원공동체 가꾸기 - 어울려 사는 마음의 힘을 단련하도록 할 것등이 노정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 방향으로 교단의 정남정녀 제도 운영상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선서식의 전환과 대책 -⑦서원을 관리할 보다 나은 방법 모색하는 문제

⑦선서식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영

⑧ 정남정녀 선택의 시기 재고

② 독신자적 삶을 위한 보충교육 및 정서관리 그리고 용심지도

③ 초자연적 製法 지향 - 정남 정녀 선서후 중도하차자에 대한 예우 - 정서적 문화적 지체분에 대한 보충교육으로 새로운 삶의 유형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도움

④ 법제화 - 불평등불문율 - 합리적제도화

⑤ 정남정녀의 기능적 특질 회복 - 차별화, 구도적 기질, 교단적 지조 강화

⑥ 공동체 문화 회복

## 2-2) 정남·정녀 제도 시행에 따른 교단적 과제에 대한 대책들

### ① 선서식 문제

현재 교단의 정서로 보면 정남선서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특히 정녀선서식에 대한 재고가 급박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정남선서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역에 임하던 남자교역자 중 소수가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삶의 방식인데 반해 정녀선서의 경우는 입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거치는 첫 관문에서부터 선택이 불가능한 일방적인 경로로 되어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역기간을 거쳐 맞이하는 선서식에서도 외길의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이것은 '교무를 계속 하느냐, 그만 두느냐'를 다시금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선서식을 굳이 진행하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이 교단내의 남자교역자들의 입을 통해 쉽사리 흘러나오고 있다. 한 교단내의 구성원들조차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정서적인 후원이 되지않는 실정이다. 선서제도는 독신서원을 확고히 다진다는 의의를 넘어서서 독신자의 질적 향상 내지 정서적 수용역량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선서식 대체 방안들〉

① 결사의식 — 결사 또는 결제식이란 흔히 불교에서 헤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나태해진 정진상을 반성하면서 보다 굳건한 서원을 들이키며 맹렬정진의 기점을 세우기 위해 대참회를 하고 대각오를 다지는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사회 입문의 근본적인 의미는 영적성장과 정신적 성숙에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 공동체에서의 연륜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이나 권위적 상승효과 보다도 정신의 지속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교육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우리교단의 정남·정녀에 대해서도 단순한 순결중심의 정화단 입단식을 지양하고 상당기간씩의 수행결제를 제도적으로 살리면 교단의 수행기풍도 진작될 뿐만 아니라 선서식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교무승급을 위한 교육과 교무승급식 — 앞에 거론한 종교적 결사제도는 종교인의 자발적인 정진을 북돋고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다면 승급제는 종교적 성숙정도를 객관성있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수준을 인정

해 주는 것으로 의미지워 볼 수 있다. 현재 교단의 실정으로 보면 출가식을 거친 후 몇년간은 부교무급으로 있다가 부교역자 근무 연한이 차면 정식 교무급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의 승급이 현실적으로나 정신적 성숙으로나 별다른 의미가 없는 형편이다. 교무 승급에 앞서 승급을 위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질적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동시에 공식적인 교무승급 의식을 베풀어 줌으로써 뚜렷한 자각과 책임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선택연령 재고 — 현재 교학대 지망자들의 정남·정녀 선택은 연령적으로 보아 20세 전후에 평생 독신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요즈음 일반 청소년들의 정신연령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결혼적령기 이전 선택에 대해 충분히 보호는 하되 심경의 변화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비교역자 지원과 동시에 수학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원을 확인하는 현행 절차는 재고되어야 하고 서원식 대상자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정 수학기간을 거친 뒤 예비 정남정녀 지원을 공식화하며 사실은 일단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총부나 영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되면 각자 나름대로 독신교역자의 길을 심각하게 숙고하게 되므로 스스로 정신적 긴장과 압박에 적지않게 시달린다. 여기에 다시 그것도 남학생과 차별적으로 여학생만 정녀지원서를 전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은 피교육자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압박을 유발하여 교육기간에 발휘되어야 할 창의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칫 경직된 경건주의에 치중하여 새시대 대중을 인도할 천진하고 자연스러운 감화력을 키우기 어렵게 되어 수년간 피땀흘린 교역자교육의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보다는 방향을 달리하여 정남 정녀 지망을 선호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므로써 수학기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결혼희망자에 대비한 다양한 선택과 교육의 기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 원불교 교단에서는 정녀지원에 거의 예외가 없다시피 하는데 비해 정남 지원율은 극도로 희박하다. 반면에 대부분의 남자 교역자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정남생활을 깊이 고려했었다는 뒷얘기들은 교단적인 운용의 묘를 개발하기에 따라서 남자 정화단원의 수가 보다 현실적으로 확장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즉 단계적으로 혹은 연차적으로 서원관리를 해주면 적어도 정남 생활의 폭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식의 변화는 현재 까지 심각하게 불균형 일변도로 흘러온 남녀교역자 및 정남 정녀 비율의 조화와 균형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정남정녀의 독신생활 훈련

⑦ 전문교육안 마련 — 대종사님 가르침의 핵심은 용심법이다. 용심의 의의는 마음의 근본처 및 운용원리를 연마하며 이 연마의 공덕으로 자신의 심신을 바르고 원만하게 조정하고 나아가서 뭇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범이 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 한 마디로 욕심을 벗어난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격이 되자는 것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교단이 역사나 규모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기풍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특히 수행상의 편중성을 지양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동정이 함께 배려된 11과목 훈련법이 주효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음을 빼 놓을 수 없다. 한편 정녀중심의 교역자 양성이 세월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삶의 국면에 원만하게 대응하는 실질적인 삶의 지도사라기 보다는 정결한 분위기와 교단에 대한 혈심을 주된 장기로하여 이로써 지도자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정남 정녀라는 명분만으로 기질의 편중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몰이해의 부분들을 커버하기에는 심각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용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삼학의 수행이 필수적이다. 삼학수행의 주된 목적은 바르고 빠른 판단력을 구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인생의 이해력이 바탕된 원숙한 판단능력을 지닌 원만한 정남정녀 교역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성리교육, 성교육, 감성교육과 건강관리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한다.

## ③ 원불교 가족법주 회복 / 초기 공동체 유형회복

⑦ 건강하고 힘 갖춘 정남정녀를 양성 — 정남정녀의 역할은 특히 종교적 핵심기능으로 교단내에서 성숙되어 가야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제도는 원불교 교역

자 가족의 한 형태로서 기능하는 것일뿐 형태로서나 역할상 전체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만큼 이 제도만을 특별히 부각시키거나 과중한 부담을 주지는 말아야 한다. 원불교 교단내에서 정남정녀군은 보편화 시킬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성화하고 차별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순기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한 남녀 교역자들, 간사근무자들, 예비교무들간의 만남이 더욱 빈번해지게 하면서 풍성한 인간적 토양 속에서 저절로 피어난 정남·정녀가 바로 원불교적 독신 교역자만의 향기요 특성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깨끗하고 특트인 열린 인격자로서用心의 모범적 인간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의 어울림 속에서 세속의 일상적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싹튼 성스럽고 귀한 뜻을 소중히 받아들여 각별히 키워내는 작업을 통해 원불교 수행법의 질적 가치가 내외에 천명되며 누구라도 그러한 도량에 참여하여 그와같이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보리라는 소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교단이 처음 정남정녀를 배태할 당시 갖고 있었던 구성원의 형태를 교단적으로 회복해나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원불교가 사회적 참여에 수동적이라고는 하지만 80년대의 교화공백기를 지내고도 우리 교단이 이정도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교세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원불교가 만일 독신자 일변도의 교단이었다면 그때의 수동적 대응으로 짧은 교단의 명맥이 위태롭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교단은 재가식, 출가식 형태의 다양한 삶의 고리와 연결을 가짐으로써 비록 일시적 진퇴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항상 어느정도의 사회적 유대와 현실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우위에 있는 셈이다. 그러려면 첫째 다양한 원불교의 가족층을 두루 살려내는 정책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 가장 시급한 대상이 정토회원들과 원친회원들이다. 예를 들어, 교단초기에 총부유아원 운영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 교단초기부터 확실한 담당자를 두어 교역자 자녀들이 교단의 중심권에서 교조의 직접적인 사랑과 감화를 입고 부모의 동지들인 교역자들과 간격없이 지낸 것이 후일 홀륭한 교역자 발굴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두 번째 대상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결혼한 여성 교역자들의 수용이다. 가정을 가지고 순수한 봉사와 구도의 정열로 전무출신하는 여성 교역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 교단의 기강을 산만하게 할 것 같지

만 모든 생활을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무출신 정신으로 무장된 기혼여성이 공식적인 전무출신으로 인정받고 교단에서 능력과 신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교단 초기의 제도를 부활시킨다면 오히려 교단내에 활기와 봉사의 분위기를 진작시키며 독신 교역자 및 기혼 교역자의 정신방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좋은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④ 이상적 낙원 공동체 만들기

㉠ 보면 살고싶고 문화적으로 풍성한 총부(공동체) - 전술한 바와 같이 풍부한 경륜으로 출발한 것이 본교의 공동체였다면 과연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을 거듭했다고 볼 수 있는지. 유감스럽게도 많은 선진들의 증언에 따르면 총부등 교단 공동체내에서 사는 재미가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간고했던 창립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어도 정신적 활기나 친애의 분위기는 예전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현재를 돌아보면 정토회원이나 원친회원들이 교역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고 교역제도의 단순화 (여자교역자 진출의 길이 정녀교역자 양성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원친회원들이 교단에 대해 부담을 갖고 거리를 두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총부공동체의 분위기도 예전에 비해 오히려 경직되어 가는 감이 있음을 많은 옛날(?) 사람들이 지적한다. ----이러한 경직성이 집단의 정서적 빈곤을 초래하며 다양하고 건강한 문화적 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재고할 때가 되었다. ---교단이 경제적 총족을 제외한 사랑, 성숙, 다행감 등에 있어서는 충분한 희망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1차 내지는 2차적인 구성원들을 감싸고 키우는 작업이 요청된다

㉡ 마음공부의 도량으로서의 총부 - 종교공동체 시도의 의미는 종교이념의 살아있는 구현체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가치로 취급되어야 한다. 다양한 개성의 이상적 조화를 실현함이 바로 낙원건설의 이상과 괴리되지 않는다.-공동체를 모범적 用心의 실천장으로 가꾸어 내는 일이 사실은 경제적 자립보다 시급한 일이다. 아마도 창립초기부터 교단에서 가꾸어온 다양한 가족공동체는 교역자들의 살

아있는 심성탁마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 종단의 독신 성직자들은 교조의 말씀을 수호하고 전하는 전법사로서 다소의 성격적 결함이 신자들간에 대단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불교는 전법사와 함께用心의 實踐者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간에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원불교가 사회적 신뢰를 받게 된 중심파워는 다른 무엇보다도 용심공부를 강조하는 수행의 풍토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④ 남녀주거 비율 살리기 - 언제부터인가 중앙총부를 비롯한 원불교 공동체들은 낮에는 모두가 어울려 일하고 밤과 아침에는 정녀교역자들이 지키는 곳- 이 현상은 일선 교당과 공동체 전반에 걸친 현상임 - 이 되었다. 이러한 점은 물론 여성교역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교역자 대부분의 정서적 균형을 위해서도 - 원불교의 인성적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되고 있다. 공동체내 남녀주거자 비율은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전무출신들이라 할지라도 감성적 조화율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문제이다.

◆ 교단의 공동체가 단지 집중포교를 위한 전사적 인력의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교조의 경륜에 의해서 구원의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도량 즉 낙원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연적 인구조합이 배제된 인위적 촌락(남녀별, 노소별, 결혼여부등)이 되어가는 것을 수시로 경계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는 자연 그대로의 인류사회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내면적 정화작용에 그칠뿐이라는 종교본연의 순수한 목적을 왜곡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는 성자의 깨달음으로 발아하며 깨달음은 인류의 구원으로 제 결실을 거두는데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불문하고 범인류적 차원의 교화를 펴야하는 교단의 지도자로서 다각도로 인간심성을 통찰할 수 있으려면 우선 고착적인 환경의 단순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⑤ 대외적인 교화중심 정책과 구성원들의 복지정책의 병행 :

전무출신이라고 해서 그저 온갖 일에 파묻혀 여유없이 살아도 좋다는 의미의 <전무>가 아닐 것이다. 생각과 행동이 일원의 진리를 신앙하며 교단의 일원으로

구도와 봉공함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교단의 많은 구성원들이 ‘너무 일이 많고 고달픔’을 하소연 하며 타교단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도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사는 원불교인=교무’로 정평이 나 있다. 이점은 종교교역자로서 각자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기풍을 가꾸어 온 것으로 평가되어 매우 고무적인 반면에 정신적, 정서적 여유의 고갈로 교단의 저력을 약화시키는 중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물질적인 의미의 복지차원을 넘어서서 종교적 구원을 실감할 수 있는 공동체의 空氣 - 이 공기를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한 전무 출신들의 정신적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지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과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무엇인가 뚜렷한 원불교적 해탈로 세상의 고달픔이 해소되고 정서적, 정신적 힘이 증폭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하는 정책적 전환 내지는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

### ⑤. 법제적 정리/제도화의 문제

⑦ 결혼교역자 징계규정 —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규칙”의 내용과 현행 “정남 정녀 규정”과는 내용적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남정녀 규정을 어긴 것이 전무출신 자격 박탈로 직행하는 것이 교단의 관례로 되어있다. 예컨대 전무출신 조항에 대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더군다나 전무출신 서원이 전혀 퇴색하지 않았어도 평생 내지는 영생을 서약한 교단을 자의와 상관없이 등지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교단생활을 지속하는 정녀 교역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원불교 교단에서는 정녀가 결혼할 경우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교역의 길을 떠나는 것이 (불문률에 의한)

관례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관례상 아직까지 단 한 사람의 예외자가 없었다. 특히 여성 예비교역자와 여성 교역자의 결혼과 관련한 교단적 징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교단내 예비 전무출신간, 혹은 기성 교역자간에 결혼할 경우 여성 교역자만 제적처리하던 관례를 강화하여 원기 80년부터 추가된 《교헌》4-8-6-1의 “징계규정 제 2장 5조(제적)”의 내용에 의하여 〈교역 또는 예비교역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와 결혼한 자〉에 대해서까지 제적처분 하게 됨으로써 공동체 내의 기강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나마 이 〈제적조항〉은 여성의 경우는 불문율로, 남성의

경우는 본 제적조항에 의하여 제적조치 함으로써 제적을 합법화한 것이니 명백한 남녀차별적 조치이다. 더군다나 “여성의 결혼불가”라는 불문율을 모법으로 내린 조치인지라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우리의 교단법이 불문율로 되어있다면 모르거니와 다른 법은 일체가 성문률에 의하면서 오직 여성 전무출신의 결혼에 관해서만 불문율이 적용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여성 전무출신이 결혼하는데 대한 하등의 법적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채로 결혼하려는 (예비)정녀를 ‘제적’하거나 ‘자퇴’하도록 하는 음성적 풍토는 이제 하루속히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아 조정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비록 중도에 결혼을 희망하게 된 여성 교역자들이 많은 경우 결혼과 동시에 환속을 원한다 하더라도 수십년의 역사 속에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전면자퇴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① 정남정녀 제도 정식법제화 되어야 한다 : 법제가 뚜렷하게 성문화 되어 있더라도 시대와 대중에 괴리감을 주면 즉시 검토·조정 해야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불문법에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 불문율은 합리와 사실을 캐치프래이즈로 하는 우리 교단의 유일한 제도적 맹점에 대한 보호색 기능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교단의 제도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원불교 여자교역자의 독신제도는 빼놓을 수 없는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궁여지책으로 한다는 말이 “법적으로는 여자교역자의 결혼을 금하지 않고 있다”고 변명하는 것이 상례이다.

소위 대학교육을 받은 엘리트 교역자 집단임을 자랑하면서 이런 궁색함이 더 이상 지속되지는 말아야 한다. 문자화 되어 있는 법이라면 문제가 되는 대목을 대중의 공의에 따라 수정 보완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대중의 목계로 되어있는 이른바 불문률이 문제가 될 경우, 이것을 대중앞에 문제화하고 또한 적정선을 조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세월이 가기전에 정남정녀 규정을 보다 원만하게 보완하고 여자 전무출신의 길을 확장하여 이를 법제화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더욱 바람직하고 신뢰받는 회상으로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㊂ 정남정녀의 후생문제도 겹하여 : 교단품 16장의 대종사님과 선진들께서 논의하신 부분 “일반 전무출신의 사가생활을 살핀다”, 또는 “형편에 따라 보조한다”는 대목에 대해서 : 이 사항은 결코 결혼한 남자교무에게만 해당시킬 내용이 아니다. ‘혼자 사는 정남·정녀 교역자가 먹고 입고 잠잘 수 있으면 되었지. 또 무슨 돈이 필요한가’라는 시대착오적이고 그릇된 통념으로 인해 교단의 법제가 엉뚱하게 훼손적으로 해석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예전 같으면 多產이 일반적 양태였다. 부모가 노흔하면 그 많은 자녀들이 적절한 책임분담을 하여 모실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둘만 놓아 잘 기르자’는 표어 조차도 무색한 말이 되고 한 부모 밑에 한 자녀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않게 되었다. 현재 입학한 예비교무들만 하더라도 형제수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세대들이다. 여자 교역자로서 오도가도 못하는 가정적 책임에 뮤여 허덕이면서도 교단적 배려를 받게하는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다 수월하게 보조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남정녀 삶의 초정상적 성격 감안하여 중도하차자를 위한 준정거장적 보완책을 다양하게 수립하는 것도 정남정녀들을 위한 중요한 후생대책이다.

⑥. **시대와의 조화유지** 문제---유아기 교육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 교단 초기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교육기회가 박탈되고 특히 정서적 억압이 심하여 교육과 사회참여만으로도 엄청난 기회부여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시대 사회적 변화를 따라 현대사회 여성들은 사회활동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확장되었다. 뿐 아니라 현 세대들은 유아기부터 재능의 기미가 보이거나 교육의 기회만 주어지면 남녀불문하고 본인이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녀를 후원하는 풍토에 젖어 살아왔다. 교단 초기부터 상당기간은 일반사회보다 앞선 제도로 많은 여성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수인재를 맞아들일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여려모로 약화 되어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 전기마련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 5. 마무리

전무출신으로서 특히 정남정녀의 삶은 그 서원부터가 남다른 고귀함과 고결한 선택의 길이다. 본 교단의 교역자제도는 정남정녀제가 전무출신 대열에 더해짐으로하여 명실공히 세간·출세간이 하나되는 회상으로서 모두가 부처되는 미륵시대의 선봉대를 육성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전무출신제도상의 완벽이 기해졌다고 본다. 원불교 정남정녀 제도는 교역자의 결혼이 허락된 열린 회상안에서 자발적으로 착트고 꽂고 핀 제도라는 점에서 여느 종단교역자와도 비교될 수 없는 장하고 귀한 존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본교의 정남정녀제도는 전무출신의 정신이 상당히 다져지는 중에 새롭게 가세한 때문인지 제도 운영면에서 또는 교육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대목이 적지않아 교단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정남정녀 교역의 삶은 전무출신이라고 하는 교단의 전체 교역자를 대상으로한 공도헌신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있어 탁월한 공도정신에 바탕한 독신의 길이라는 점에서 보다 의의있는, 또는 한번쯤 살아볼만한 삶의 전형이 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도 드러나듯이 천주교 교역자들의 독신제도의 이념적 배경에는 ‘미래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의 종말론적 가치관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즉 {장차 이 세상에 부활하여 재림하게 될 예수의 심판은 그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과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면 죽은 자와 산자 중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모두 하늘나라(천국)에서 영원히 하느님을 보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때-천국의 삶-에 이르러서는 여자나 남자나 결혼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리라/교역자의 독신은 이때의 삶을 미리 증거하고 재현해 보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줄거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此岸 아닌 彼岸의 세계관을 배경으로-말하자면 이 세상이 종말을 겪은 뒤 구원받은 영혼들을 대상으로, 지상이 아닌 천국에서 전개될 ‘삶’아닌 삶의 형태를 현재에 실현해 보인다는 논리인 것이다.

불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불교에서 승려의 독신을 장려하고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강조되는 사상은 인간의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 대한 卑下이다. 예컨대 ‘육신은 곧 오물과 고름주머니에 불과하다’는 관점이 이를 단적으로 대변한다. 이처럼 더럽고 허망한 육신에 집착하여 쾌락을 탐하고 나아가 혈육을 생산하여 가정에 집착하는 것은 무지와 무명의 소치이며 업력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다. 육신은 더러움 덩어리라는 생각/ 또는 가족등의 인연이 아무리 좋아도 죽음에 직면하여서는 자기 스스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인간은 결국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삶의 모든 가치는 깨달음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는 초세간적 가치관이 불교승려의 독신생활을 권장하는 가치관의 전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두 경우에 비해 원불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朝鮮佛教革新論』에 밝히셨듯이 “~세간공부하는 사람이나 출세간공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직통으로 할 것이며/ 世間.出世間을 물론하고 大衆化하기로 하니/---교리에 들어가서도---세간 출세간을 물론하고 工夫에 대한 훈련과목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기관에 들어가서도---이 제도를 운전하는데 결함이 없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이니---”

하셨으며, 또는 禮法에 있어서도 사실불공을 주로하여 세간생활에 유익한 예법을 더 밝혀야 한다는 것이 혁신의 주된 방향이었다. 즉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하는 일체의 형식적 차별을 철폐하고 세간.출세간을 구분하지 않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부처님의 직통제자로 하며/ 결혼도 출가.재가간에 오직 본인의 자유에 맡기되/ 다만 공부와 사업의 등급만을 가리며/ 공도유익의 정신을 키워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본 교단을 개교하셨다.

이같은 취지아래 대종사께서는 출가.재가가 함께하는 공부법/ 출가·재가가 함께 지키는 예법 및 결혼 여부와 상관없는 교역자 제도를 염원하고 키워오셨다. 특히 도래하는 미래상을 미륵세상, 용화세상과 비유하시면서 장차 도래하게 될 이 시대의 특징은 출가.재가 및 도량과 비도량, 僧과 俗, 공부와 생활이 구애됨이 없는(전망품16-20) 열린세상이 될것으로 전망하셨다. 다시 말해서 일체의 형식적

차별이 철폐되고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질 것이다/ 특히 공도자를 지극히 존대하고/ 마음공부의 가치가 크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 마음을 열어주는 법사의 설법을 소중히 존대하리라 하셨다. (전망18, 25)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것이 바로 대종사께서 전망하고 건설하고자 하신 현실적 극락의 진경으로서 모두가 불법의 도리를 깨쳐 스스로가 스스로의 구세주가 되며 四生一身의 大公道精神으로 서로 서로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상사회의 단면들을 소개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한다.

아직 교단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 교단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교하였으며 현실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현실과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특별한 사명을 띤 교단으로 출발하였다. 나아가 신종교로서의 여유를 십분 살려서 老大 教團의 장단점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웃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교역자 양성에 있어서도 초창의 어려움을 뚫고 전문교육에 바탕한 인재육성에 착수하여 온 점도 생각할수록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원불교의 교역자는 專務出身이라고 호칭되는 말 속에 담긴 남다른 의미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짧은 교단사 속에서도 철두철미한 奉公정신과 公人の 자세를 키워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전무출신이란 말 그대로 {남김없이 바쳐 힘쓰기 위해 일신을 내놓은 사람}이란 뜻이다. 이들이 남김없이 바치고자 하는 대상은 첫째, 세상과 회상으로서의 公道이며 둘째, 인격완성을 위한 積善을 求道精進을 의미한다. 기성종단이 주로 교조에 대한 귀의와 傳法에 초점을 두고 종말론적이거나 초세간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독신교역을 주선하는 데 비해 마음공부를 중심한 이상적인 현실낙원의 건설과 공도에의 헌신이라는 명확하고도 호대한 목표를 제시하여 주신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처럼 확고한 공도적 자각으로 하여 개인이나 교단에 앞서 세계 전체에 대한 문제에 생각이 미치고(세계의 주인정신) 이러한 입장에서 개개인의 구도(마음공부)에 전력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공부와 낙원건설이 일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큰 사업과 내외가 없는 공부를 위해서는 결혼이나 남녀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크신 경륜이며 본교의 정남정녀 제도에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전무출신으로서의, 혹은 公人으로서의 가치관이 정신적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타종단에 비해 독신자들에 대한 규제조항이 세세하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전

무출신으로서의 근본정신이 기혼, 미혼 교역자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동력으로 작용하는 사실도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한다. 원불교 정남정녀는 이와같이 호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교단의 가풍 속에서 활달하고 자발적인 의지를 존중하여 싹트고 가꾸어졌다. 현재까지의 경향이나 추세로 보아 시대가 지날수록 교단내 정남정녀들의 입지와 역할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남정녀들에 대한 교육은 보다 심화되어야 맡은바 책임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정남정녀제도 운영상에 야기되는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노대종단의 전철을 밟아 하나의 제도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 대종사님의 개교에 담긴 뜻을 되살려 그간에 제도적으로 다소 축소되었던 부분들을 과감히 개방하고 자발성을 보장함으로써 순수하면서도 감화력있는 정남정녀를 육성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그들의 노후에 대한 교단적 숙제를 현저하게 줄이는 동시에 새시대가 요청하는 성숙한 교역자를 만들어내는 교단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보는 바이다.

## 6. 중요 참고도서

1. 『원불교전서』 .1987(원기72), 3,20.원불교 출판사 발행.
2. 『원불교 교고총간』 .1973(원기58), 8,26. 원불교 정화사 발행.
3. 『개벽의 일꾼』 .1985(원기70), 11.5. 金志貞 著, 원불교 출판사 발행
4. 《예전》 /원기 15년 제정. 『원불교사상』 제5집 부록 1981,10,10. 원광대학교 출판국 발행.
5. 『원불교 헌규집』 . 원기 81, 6,30발행본. 원불교 교정원 발행.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1977,4,20.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발행
7. 『교회법전』 .1989.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발행.
8. 『불교성전』 .1987,7,7.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발행.
9. 『十萬誦』 .
10. 월간 『司牧』 219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발행.
11. 『숫타니파아타』